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19일

CUOMO 주지사, 수십 명의 뉴욕 셰프와 레스토랑이 뉴욕산 식음료 제품의 사용을 10% 이상 늘리기 위해 *뉴욕의 자부심 서약(PRIDE OF NEW YORK PLEDGE)* 을 하다

이 서약으로 Taste NY와 뉴욕주의 활발한 식음료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십 명의 뉴욕주 셰프와 레스토랑이 뉴욕주에서 생산된 최고급 와인, 맥주, 증류주, 농산물 및 로컬 식품을 후원하기 위해 *뉴욕의 자부심 서약(Pride of New York Pledge)*을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와 함께 뉴욕주 전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레스토랑, 레스토랑 단체 및 셰프들에게 *뉴욕의 자부심 서약*을 지원해주고 뉴욕주 생산 제품의 사용을 10% 이상 늘려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뉴욕의 자부심 서약*은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Taste NY 프로그램의 새로운 중요 요소로 뉴욕주의 요리업계에게 뉴욕주가 자랑하는 풍부한 식음료 제품을 활용하도록 이끌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많은 셰프와 레스토랑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지역산 식품, 농산물 및 낙농제품, 맥주, 와인, 증류주 가운데 일부가 뉴욕주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Taste NY은 우수한 뉴욕산 식음료를 알리는 홍보의 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에서 활동하는 농산물 생산자들을 위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최고의 레스토랑 수십 곳이 우리의 로컬 푸드와 음료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뉴욕 현지 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러한 농산물들의 사용을 늘리기로 서약했다는 것이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뉴욕의 자부심 서약(Pride of NY Pledge)*에 함께 한 레스토랑 단체 및 셰프:

Benchmarc, 셰프 Marc Murphy:

- o Landmarc, Time Warner and Tribeca
- o Ditchplains, West Village and Upper West Side
- o Kingside

Union Square Hospitality Group, Dan Soloway

- o Gramercy Tavern
- o Union Square Café

- o Blue Smoke
- o Jazz Standard
- o North End Grill
- o Maialino
- o Shake Shack (11곳)
- o The Modern
- o Café 2 & Terrace 5

Altamarea Group, 셰프 겸 공동 소유주 Michael White:

- o Marea
- o Ai Fiori
- o Osteria Morini
- o Nicoletta
- o Costata
- o The Butterfly – Manhattan

Fatty Crab & Fatty Cue: Rick Camac, 경영 파트너
Salumeria Rosi and Il Ristorante Rosi: 셰프/소유주 Cesare Casella
Tribeca Grill: Martin Shapiro, 경영 파트너
Mission Chinese Food: 셰프/소유주 Danny Bowen
Bistro La Promenade & Azure by Allegretti: 셰프 Alain Allegretti
Jimmy's No. 43: 셰프/소유주 Jimmy Carbone
Bogota Latin Bistro: 소유주 Farid Ali Lancheros
Sylvia's: Jason Wallace, 총책임자
The Den: 소유주 Brice Jones
Café Tallulah: 셰프 Matt Voffman
The Cleaver Company, 소유주 Mary Cleaver (3곳): The Green Table
Black Shack & 67 Burger: Ed Tretter, 파트너
The Calhoun School: 셰프장 겸 Food Services 디렉터, 셰프 Babbo
Spike Hill: Trezia Jean-Charles, 총책임자
Sardi's Restaurant: Sean Ricketts, 총책임자

각 셰프는 *뉴욕의 자부심 서약(Pride of New York Pledge)*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하였습니다:

> 뉴욕의 식음료 생산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을 포함해 뉴욕주에서 재배 및 생산된 제품과 재료 사용을 10% 이상 늘린다.
> 음료 메뉴에 와인, 맥주, 증류주, 사이더 및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음료를 넣고 특별히 추천하고 10%까지 늘린다.
>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재능을 활용하여 현지 생산된 제품과 계절 식품들이 맛있음을

보여주는 뉴욕을 테마로 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
사람들이 뉴욕산 식음료를 알릴 수 있도록 공급업체, 동료 및 일반인들과 열심히 소통한다.
직원들에게 뉴욕주 현지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교육하고 알린다.

*뉴욕의 자부심 서약(Pride of New York Pledge)*은 FOOD & WINE이 개최하고 2013년 10월 17-20일에 열리는 유명한 Food Network New York City Wine & Food Festival에 Taste NY이 처음 참가하는 것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뉴욕주 식음료는 오늘 10월 19일에 열리는 특별 브런치 장소와 Grand Tasting Tent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서약은 유명 셰프, 레스토랑 경영자, 주요 농산물 재배업체, CCE(Cornell Cooperative Extension)와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Festival and Brunch의 모든 사항은 Food Bank of New York과 Share Our Strength 재단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Cuomo 주지사와 NY 레스토랑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셰프와 레스토랑이 뉴욕의 자부심 서약(Pride of New York Pledge)에 동참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참고 웹사이트: http://nysra.org/associations/2487/files/TasteNYPledge.pdf

뉴욕의 자부심 서약에 동참하는 첫 셰프들 중의 한 분인 Marc Murphy는 Landmarc, Ditchplains, Kingside 레스토랑을 비롯해 유명한 Benchmarc Restaurants을 운영하는 공동 소유주 겸 셰프입니다. "저는 뉴욕시 셰프이자 레스토랑 소유주로서 뉴욕주와 함께 최고의 농장, 정육점, 양조업체, 증류업체,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훌륭한 제품 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셰프 Murphy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로컬 제품들을 후원하고 제 레스토랑인 Landmarc, Kingside, Ditch Plains에서 다양한 로컬 식품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서약은 우리 농업이 함께 힘을 합쳐 Empire State를 널리 알리고 최고의 식음료를 선보일 수 있는 멋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Cornell University의 David J Skorton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 드렸듯이 Cuomo 주지사께서는 이곳 뉴욕에서 우리가 가진 자산을 알아보시고 이들을 하나로 엮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레스토랑 경영주들은 Upstate 생산자 및 레스토랑 후원자들에게 똑같이 도움이 되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을 들자면 이 새로운 사업은 미국의 농업경제개발 전략의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Cornell의 농업생명과학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과 뉴욕시 및 Upstate에서의 대대적인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네트워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 기관들은 수 년 동안 Upstate 생산자들과 뉴욕주 남부 셰프를 연결해주고 'Market Maker' 푸드 허브를 활용하여 뉴욕시 인근에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들 기관은 뉴욕주에서 상호 협력과 이익을 가져온 이 모델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이런 모델이 한 번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주지사의 Tast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생산되고 재배되는 다양한 식음료를 꾸준히 뉴욕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알리며 식당 및 호텔 접객 업소와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 뉴욕의 식음료업계를 브랜드화하고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ESDC(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및

DAM(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공동 마케팅 사업입니다. 뉴욕주의 기업식 영농업을 알리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활동의 일환인 Taste NY은 중요 행사장에 마련된 Taste NY 텐트, 교통 허브에 마련된 Taste NY 스토어 및 웹사이트 www.taste.ny.gov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